뻔뻔 최순실 "대통령과 공모 없어…딸 이대 입학 정당"

국조특위 '감방 청문회'

어제 일도 모르는데…

세월호 당일 행적 기억 안나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의혹의 가장 근본적인 사안인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련 여부는 물론, 지금까지 언론과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사실 모두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2시간 30분가량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을 아느냐'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씨는 "모른다"고 답했다고 황 의원이 전했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물론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몸과 마음이 너무 어지럽고 심경이 복잡한 상태"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국민께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명해진 사람이라 시끄러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최씨는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면서도 '박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면서 시녀처럼 뒷바라지를 많이 했고 국정에 1%도 관여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처음 듣는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최씨가 내고 박 대통령이 전경련을 통한 모금 아이디어를 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관련 재단이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추궁하자 "공소장에 박 대통령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정호성 비서관에 의해서 되어 있어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는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 데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답변했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 딸은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 왜 부정입학이냐"고 따져 묻듯 답했다고 윤소하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정유라의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잘 안다"고 답했다.

'독일에 8000억원이 넘는 차명 재산이 있지 않느냐'고 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독일에는 단 한 푼의 재산도 없다"고 했고, '독일에서 잠적한 딸 정유라를 자진 귀국시킬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당선 전에도 최씨가 차움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느냐'고 묻자 "당선 전에는 안 갔다"고 했다. 최씨는 '국민은 최순실씨가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종신형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은 "최씨는 신문 내내 물도 마시고 답변을 또렷이 했다"며 "곤란한 질문에는 '특검에 가서 말하겠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피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청문회 간사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만나기 위해 보안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종범 "모든 것 박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했다"

구치소 청문회…"세월호 당일만 대통령 일정 비어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출연, KT·포스코·현대차그룹과 관련한 이권개입 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그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중 본인이 판단했고 결정해서 이행한 적이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단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한 적이 없고 모두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이 전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비밀누설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건건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4·16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그 전후로 박 대통령의 일정이 빡빡했는데 그 날만 유독 일정이 비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매우 피곤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저에 있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이 그날 오후 2시가 지나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저로 가서 박 대통령을 직접 봤다고 처음에 말했다가 나중에는 대면했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자료'가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정부 인사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인사 발표안에 대한 내용 수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최씨가 말했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는 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잘 아는 분이라 많이 상의했다"며 "뒤에서 돕는 분이라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靑 연결고리' 규명 박차

특검, 문형표·김진수 청와대 복지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고 있다.

특검팀은 2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중이던 작년 7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당시 합병안 찬성 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뤄졌다.

국민연금이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시장 논리를 거스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결정 직후 최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220억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 측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정씨 1인을 대상으로 삼성 측이 대규모 지원에 나선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을 포함한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검팀이 문형표 전 장관뿐 아니라 김진수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비서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국민연금에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로 최씨의 청탁에 따른 박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검팀이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물증을 찾을 경우 제3자 뇌물 혐의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